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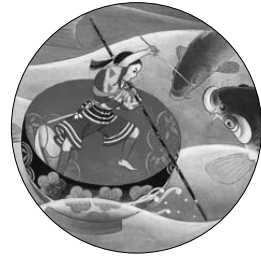
## 일본, 그림에도 여전히, 세계의 입구

—『축소지향의 일본인』으로 읽는 한 후기식민지인의 초상

황호덕



- (위) 고단사판 『축소지향의 일본인』의 표지
- (오른쪽 페이지 위 왼쪽부터) 『축소지향의 일본인』의 저자 이어령, 세계 최초의 휴대용 카세트플레이어인 소니의 워크맨 'TPS-L2', 일본의 전래동화인 '잇스보시' 이야기를 그린 삽화



### 1. 문화접경지대에서 쓴 문화유형론 — 후기식민지의 식민본국론

일본과 한국 ‘양쪽’에 깊은 각인을 남긴 일본문화론의 하나로 이어령의 『축소지향의 일본인』(『縮み』志向の日本人, 1982)을 들기에 주저할 사람은 별반 없을 것이다. 주로 일본의 저널리즘 속에서 논의되곤 했지만, 그의 일본문화론은 소위 “일본인만큼 스스로의 국민성을 논하기 좋아하는 국민은 달리 없<sup>1)</sup>”다는 일본 ‘고유의’ 현상에 조응하며 지금도 일본에서는 저명한 출판사 고단샤(講談社) 문고본으로 매년 1쇄 이상 팔려 나가고 있다. 늘 서구 혹은 중국과의 비교 속에서 행해진 일본론의 틀을 깨며 등장한 이 책은 제국일본의 구(舊)식민지인에 의해서 저술되었으면서도 정치 그 자체는 괄호 속에 넣은 논의로서 뛰어난 상상력과 비교적 객관적인 관찰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얻었다. 예컨대 이 책은 흔히 저널리스트들에 의해 (또, 저자 자신의 의도처럼) “메이지 이후, 일본인들이 탈아시아, 서구 승배의 사고방식에 젖어 ‘서구의 여러 나라들보다 우선 일본어와 가장 유사성이

\* 지은이 | 황호덕 성균관대 국문과 및 동대학원 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 총합문화연구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1999년 『문학사상』에 문학평론을, 2001년 『KINO』에 영화평론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수학·강의했고, 일본 조사이 국제대 전임강사를 거쳐 2008년 현재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사유의 공간』(공저), 『근대 네이션과 그 표상들』, 『근대어 근대매체 근대문학』(공저) 등이 있고, 『근대어의 탄생과 한문 — 한문맥과 근대일본』을 함께 옮겼다.

1) 南博, 『日本人論: 明治から今まで』, 岩波書店 1994. (미나미 히로시, 『일본인론(上)』, 이관기 옮김, 소화, 1999, 7쪽).

많은 한국어부터 조사해 보는 정상적인 사고'가 결여되어 있"음을 통박한 것<sup>2)</sup>으로 읽혔으며, 이러한 평가에는 "근대 일본에 있어서의 역사적 상황을 그 최대 희생자였던 한국인 저자가 괄호 안에 넣어버린"<sup>3)</sup> 점에 대한 놀라움과 안도감이 자리했을 터이다.

그럼에도 이 책의 효용은 이 책의 비정치성과는 별도로 정치성까지를 포함하는 화제를 유도한다는 데 있었던 듯하다. 일본의 한 비평가는 이 책을 평하며 "이 책이 나에게 신선하게 느껴졌던 것은 일본문화를 고찰하면서 그 비교 기준으로서 한국을 채택했고, 그것이 그의 형식적인 고찰에 암묵적인 '역사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데 있다"<sup>4)</sup>고 쓰고 있다.

요컨대 이어령의 근원적 질문은 "어쩌서 **일본만이** 홀로 공업 경제국으로 구미문화와 같은 대열에 낄 수 있게 되었는가?"<sup>5)</sup>라는 데 있었다. 그러나 '많은 동양' 중에 왜 (한국이 아니라) '일본만이' 서양과 대등해졌는가라는 물음에는 일종의 모순이 내재한다. 일괄할 수 있는 동양이 있을 수 없다면 일괄 가능한 서양 역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책에서 이어령은 제국일본의 무력(武力)이 빛은 역사를 어느 정도 괄호 안에 넣고, 전후일본의 경제적 번영을 축소지향이라는 현상에 내재한 독특한 '국민성'의 문제로 설명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리고 이는 어디까지나 '서양일원론'과 '일본불변론', (일본 외) '동양 정체성(停滯性)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일본특수론의 권역 안에서 그 '특수성'의 정체를 충실히 설명해 보인 사례였다 할 수 있다. 이어령 역시 일본의 일본론자들처럼 근대성 속의 진보적 시간 구축과 비교항의 설정을 위해 '서구'라는 개별적 현재를 때

2) 다카노 하지메, 「왜 지금 '축소지향의 일본인'인가, 김윤식 외, 『상상력의 거미줄: 이어령 문학의 길찾기』, 생각의 나무, 2001, 501쪽.

3) 柄谷行人 「借景に関する考察」『批評空間』II-17, 1998. 6., 35-46쪽(가라타니 고진, 「사케이(借景)에 관한 고찰」, 김윤식 외, 『상상력의 거미줄』, 480쪽). 본문 중의 '借景'은 일본어 표기법에 따라 '사케이'로 바꾸었다.

4) 가라타니 고진, 「사케이(借景)에 관한 고찰」, 481쪽.

5) 이어령, 『축소지향의 일본인』, 문학사상, 2009, 25쪽 이하. 이 글에서는 『축소지향』: 25)의 방식으로 인용문의 출처를 표기한다. 이 책의 초판은 1982년 『縮み, 志向の日本人』라는 제목으로 가쿠세사(学生社)에서 출간되었으며, 1984년 고단사(講談社)에 의해 문고본화되었다.

로는 기원으로 때로는 미래로 설정한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일본의 특수성을 (전후의) '축소지향'이라는 현상, 즉 전전(戰前) 제국일본의 확장주의 반대편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였다. 요컨대, 이어령은 '축소지향'이라는 일본의 국민성이 '대국'(大國) 의식으로 변질되지 않고 '소국'(小國) 의식으로 계속 견지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에(甘え, 어리광)라는 일본 특유의 현상은 한국에도 있다는 식의 비판을 통해서 이 책이 일본특수론의 기반인 일본 대(對) 서양이라는 일원주의적 비교법을 상당부분 해체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특수론 그 자체를 해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일본의 특성은 서양사람과의 차이점보다는 같은 동양인인 한국인이나 중국인과의 차이점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이어령의 질문이 서양 대 일본이라는 비교일본론의 틀에 충격을 가한 것은 사실이다. 일본특수론에서 일본은 '서양'이라는 비교항 속에서 동양 전체를 대리하는 한편, 동양에 대해서는 이 범주와 구별되는 독특한 위치를 점한다. 따라서 동양 안에 많은 동양이 있고, 일본의 특수성은 그런 의미에서 서양이 아니라 일본과 가장 가까운 한국과 비교되어야 한다는 이어령 나름의 입론이 가진 설득력은 실로 컸다.

한편 그의 입론이 동양 일괄주의의 틀을 상당부분 해체한 논의였던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양은 다 다르다'라는 문제 제기의 목적 자체가 일본특수론에 배치되는 것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결국 동양 안의 차이들이란 일본문화의 '차이'와 특수성을 더 또렷이 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특수성을 한국을 비롯한 '동양' 전반 속에서 재검토하는 기획이 결과적으로 일본특수론의 풍부화에 기여하게 된다는 아이러니를 그로서는 아마 충분히 의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책의 진정한 놀라움은 이 책이 일본특수론과 일본론 해체주의자 모두에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제국일본의 국제문화로부터 탈각해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궤도를 긍정하는 신국민성론으로 재차 일

본론을 소구하는 입장<sup>6)</sup>, 또 반대로 단일하고 항구적인 단위로서의 “‘일본문화’라는 자기 표상 — 그와 더불어 ‘조선문화’라는 자기 표상 역시도 — 을 해체하는 수단”<sup>7)</sup>을 모색하는 탈일본론의 입장 모두에게 이 구식민지로부터 도착한 사유는 매우 유용하였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식민주의식, 근대화 지향 속에서 늘 일본이 궁금했던 한국에서도 그의 이 책은 판과쇄를 거듭하며 여전히 읽히고 있으며, 80년대 이후 비등했던 일본론 시장의 스테디셀러로서 경제대국 이후의 일본관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분명한 것은 이어령이 기존의 일본에 관한 문화유형론 안에 한국이라는 문화적 접경지대를 주요 매개변수로 이입시킴으로써 소위 동양 안에 존재하는 동형성과 차이, 즉 문화적 접경의 문제를 성가시지만 본질적인 문제로 부각시켰다는 사실이다.<sup>8)</sup> 이어령의 분석은 그 스스로가 문화적 접경지대로서의 ‘식민지’ 속에서 성장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더욱 실감 있는 것이 된다. 인종, 종족, 언어, 계급, 종교 등의 면에서 소수자 집단에 속해 있던 이 옛 피식민자의 말은 따라서 문화적 접경지대에서 관찰된 ‘진정한 차이’에 관한 경험적인 진실로서의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어령의 위치 자체가 1960년대 이후의 문화인류학 비판이 제기한 문화접경지대의 문제와 연동되어 읽혔던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전후 일본문화론의 고전인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은 “서양인의 눈에 비친 일본인”의 문제를 “일본인이 사용하는 범주와 상징”<sup>9)</sup> 속에서 파악하려 했던 문화인류학적 국민문화론의 대표적 성과라 할 수 있다. 철저히

6) 여기에 대한 지적으로 杉本良夫·로스·マオア, 『日本人(は「日本的」か: 特殊論を超え多元的分析へ』, 東洋經濟新報社, 1982. 이들은 이 책에서 일본특수론이 서양일원론과 국민성 일괄주의, 비교없는 특징짓기 등에 의해 작동한다는 것, 그 흐름이 국체문화이론, 민주화이론, 근대화이론, 신국민성론 등의 주류적 테마에 의해 움직여 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각각의 일본특수론이 당대의 일본 사회에 대한 평가나 보편성의 획득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구성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보자면 이어령의 논의는 경제적 도약 이후 일본의 자기 긍정, 즉 신국민성론의 지평에서 읽혀졌다고 할 수 있다.

7) 가라타니 고진, 『사케이(借景)에 관한 고찰』, 481쪽.

8) 문화유형론에서 문화적 접경지대로의 문화인류학의 논제 이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했다. 레나토 로살도, 『문화와 진리: 사회분석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권숙인 옮김, 이카넷, 2000, 64~70쪽.

9) 루스 베네딕트, 『국화와 칼』(1946), 김윤식·오인석 옮김, 을유문화사, 2002, 29쪽.

“서구의 병사들과 일본 병사들 사이의 현저한 차이”<sup>10)</sup> 속에서 행동과 행동을 낳은 문화의 유형을 찾아내려 하였던 것이다. 그에 비해 이어령이 던진 질문은 일본을 통해 한국을, 한국을 통해 일본을 조명한다는 접경의 사유에 근거해 있었다. 예컨대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일본과 일본인론은 한국인의 관점 혹은 한국의 문화 풍속과의 비교를 통해 쓰일 때 보다 그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또 일본이 한국을 잊고 있다는 것, 한국을 잘 모른다는 것은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 자신의 불행이라는 것이다. 한국을 모르고 일본의 참모습을 보기는 힘들 것이다”(『축소지향』: 27). 책 출간 후 생겨난 “반 년만에 대사관 문화부가 3년 동안 할 일을 혼자 해냈다”<sup>11)</sup>는 평가에서 알 수 있듯, 『축소지향의 일본인』은 한국문화론 혹은 한일비교문화론으로 읽혀졌다.<sup>12)</sup>

하지만 이어령은 문화유형주의의 고전적 규범을 깰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서 다시금 문화유형론의 전형적인 문법으로 되돌아갔다. 입론의 충격성을 탈정치적인 제유(提喻)들을 통하여 봉인하면서, 이어령은 전후 일본을 폐쇄적이고 단 일한 소우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 복귀해 버린 것이다. 축소지향이라는 ‘공유된 문화유형’의 일관성을 새롭게 거듭해서 강조함으로써, 전후 일본의 격렬한 정치적 격동과 단절적인 운동들, 한 문화 내의 내적인 비밀관성, 갈등과 모순은 주의 깊게 봉인되었다. 비판적인 결론에 해당하는 이 책 제6장의 현실 인식은 따라서 바뀔 수 없는 본성을 경제적 관계 안으로 봉쇄한다는 미국의 대일 전략 안에서 움직이는 관례화된 비판에 그치고 만다. 이어령의 일본론은 일본문화의 전(全)시기를 포괄하고 있으면서도 봉건제나 천황제, 메이지(明治)와 쇼와(昭和)의 유신, 패전과 상징천황제와 같은 정치적 레짐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분석도 행하지 않는 데, 이것이야말로 1980년대를 전후한 신국민성론이 괄호에 넣고 싶어한 문제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이다. 한국과 한국문화를 알리는 방법으로써만 문화적 접

10) 루스 베네딕트, 『국화와 칼』, 56쪽.

11) 佐伯彰一·芳賀徹 編, 『外国人による日本論の名著』, 中央新書, 1987, 261쪽.

12) 예컨대 그의 아이러니에 가득찬 말투는 이런 식이다. “롤랑바르트가 지저한 바와 같이 젓가락은 새의 부리이며, 포크는 육식동물의 발톱이다. 그렇다면 국물과 건더기를 함께 먹는 한국인은 삐끔삐끔 물과 함께 먹이를 입에 넣는 금붕어와 같다고 할 수 있다”(『축소지향』: 101~102).

경지대를 활용하고, 잊을 수 없는 타자인 구식민본국 일본에 관해서는 탈제도화·탈정치화된 문화유형론을 고수한다. 바로 이런 태도야말로 '냉정한 보편주의자'를 자처하는 후기식민지인이 구(舊) 제국을 향해서 발언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유방식이 아닐까.

따라서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둘러싼 평가나 논의들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어떤 경이와 상찬의 연쇄는 분명 주목을 요한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그렇다. “이어령은 세 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20대에는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로 한국을, 40대에는 『축소지향의 일본인』으로 일본을, 50대에는 올림픽으로 세계(88서울올림픽의 개·폐회식은 물론 식전 식후 문화행사는 이어령이 구상한 것이다)를…….”(김윤식).<sup>13)</sup> 이어령에 대한 이 표현에는 약간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한국-일본-세계로의 이동, 즉 후기식민지 한국에서, 구 식민본국 일본을 거쳐 거기서 세계로 나아가는 이 사유의 동선은 식민지에서 태어난 후기식민지 지성이 세계성으로 매개되는 전형적인 경로를 보여 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그의 일본론이 한국문화론과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구식민본국 현장(일본)에 대한 고유한 비교 표현, 혹은 하나의 필드워크가 어떻게 식민지 기억의 화인 속에서 움직이는 한편, 후기식민지의 자기 표상 구축과 세계성에 접속 가능한 경로를 탐색하는 보편주의적 열정에 관여하는지에 대해 해명해 보려 한다.

## 2. 한 후기식민지 엘리트의 초상, 이어령의 해방 전후와 일본인식

### 1) 일본 국민성의 제유들, 탈서입아(脫西入亞)라는 방법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는 책의 표제에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아마 워크맨을 비롯한 일본의 공산품들일 것이다. 이레코(入レ子)형, 절부채(扇子)형, 아네사마(姉様) 인형형, 도시락형, 노멘(能面)형, 문장(紋章)형 등으로

13) 오세영, 「천재와 시인, 김윤식 외, 『상상력의 거미줄』, 291~292쪽에서 재인용.

범주화된 축소지향의 여섯 가지 모형이 경제대국화의 근원으로 설명되는 한에서, 이런 범주들은 필시 트랜지스터 라디오라는 현상에 의해서 촉발되었을 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쩌면 “일본인이 테크놀로지에 있어서 작은 것을 지향한 것은 패전 후의 비군사화의 체제 속에서 그러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고, “전전 일본에서도 거대화가 지향되었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축적되었던 기술과 생산 관계가 없이는 전후 일본의 경제적 성장도 있을 수 없다”<sup>14)</sup>는 말 역시 참이다. 이렇게 제국주의적 생산양식의 후효과로서의 현대일본의 제조업을 떠올려 볼 때, 탈역사적 국민성론이 이미 별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운 오늘의 상황에서 보자면 이어령의 책은 “비역사적 문화본질론”(가라타니 고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읽혀질지 모른다.

이어령이 동양일원론을 비판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일본론을 통한 한국(인)론을 펼쳐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역시 서양을 하나의 담론적 단위이자 실체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비판은 방법적인 것이지 근원적인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차라리, 동양일원론 비판은 서양일원론 구축과 한 쌍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 “문화비교라 하면 구미라는 ‘태양’과의 비교만이 머릿속을 꽉 채웠던 우리들 ‘해바라기문화인’(이어령의 표현)의 맹점을 파고들기에 이미 그 자체로 극히 자극적”<sup>15)</sup>이라는 평가처럼 그는 서양대 일본이라는 도식에 충격을 가한다. 그러나 그 논의 안에서 서양은 탈역사적인 전제이자 기준으로 기능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롤랑 바르트나 폴 클로델 등을 통해서 지지되는 논증처럼, 그 자신 역시 한국인과 서구인들의 시선 사이를 오가며 설득력과 동력을 얻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자리 내부에 존재하는 까닭이다. 구식민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이런 ‘방법’을 보이지 않게 할 뿐이다. 통역사성의 매력, 혹은 비역사적인 분석의 미심쩍음이 교차하는 이어령의 책에서 일본문화의 통역사적·통공간적 본체 찾기는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이는 당연히 현대 일본의 변영을

14) 가라타니 고진, 『사케이(借景)에 관한 고찰』, 479쪽. 이 책의 ‘방법’에 대한 고진의 기본적 입장은 이런 것이었다. “역사적인 결과를 본질적인 민족성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15) 佐伯彰一·芳賀徹 編, 『外國人による日本論の名著』, 262쪽.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책을 읽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의문은 이런 것이다. 기원을 알 수 없는 쥘부채와 다이쇼의 슬라이드식 우산과 1980년대의 삼단 꺾기 우산과 전후의 전자산업을 하나의 특수성으로 엮어 내는 상상력 혹은 비약 속에서만 일본은 통역사적인 전체 혹은 하나의 문화가 되는 것이 아닐까. 즉 일본이라는 단위를 확정시켜 주는 일본론 특유의 위험을 이어령의 이 책이 끝까지 시현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화법이 늘 다음과 같은 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일본의 트랜지스터 문화는 이미 천 년 전 헤이안(平安) 시대부터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보다 간편하게 축소된 일본의 카메라와 전자 제품들의 무역 바람이 바로 옛날 부채 상인들이 일으킨 그 바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78) 그러니까 “작게 개발하는 기술에서만은 단연 앞서 있던 것이 다름 아닌 일본문화의 본체”(78)라는 말이야말로 현대 일본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에 상식을 약간 초과한 대중적 글쓰기로 답하는 방식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인에게 익숙한 것, 표층문화 속에서 심층적 연결을 시도하는 기획이 흥미롭고 기발한 것일수록 일본의 변형은 탈역사적 수준에서까지 정당화된다. 요컨대 그들의 국민성-축소지향은 ‘뛰어나다.’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이어령의 이 책은 외국인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원초적 물음에서 출발하는 일본인론의 원천에 극히 충실한 듯하다. 일본(인)이라는 단위 그 자체를 창조하는 자기동일화 과정에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물음 속에 존재하는 약간의 자기 반성예의 요구를 그가 계속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1억 인구를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축소해, 도시락통 같은 하나의 틀 안에 ‘쓰메루’하는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은 이상하게도 동양에서는 유일하게 자유 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본인들 쪽에 많은 것이다.(『축소지향』:105)

1억 인구를 일본인의 본성과 관련해 동일시하는 사유 자체가 소위 ‘일본인론’

이라고 할 때, 그의 생각은 일본, 그 안의 일본인, 일본인 안의 기술과 정신 등을 하나의 동일한 단위로 놓는 사고방식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 책의 화법은 일본 자체에 대한 비판을 일본인이라는 안정된 단위 안에서 실행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후기식민지인 나뭇의 비판적 파토스가 특수성에 대한 설명과 늘 같이 한다. “무엇인가를 절부채와 같이 또 이레코같이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은 원숭이가 나무에 오르고 두더지가 땅을 파는 것같이 일본인에게 당연한 성품인 것이다”(『축소지향』: 99)라고 말할 때 그는 일본인을 칭송하는가, 아니면 조롱하는가. 인간과 환경의 변증법 속에서 문화를 파악하는 풍토론이나 생산관계와 지배양식 속에서 문화를 일종의 상부구조로 파악하는 정치경제학과는 달리, 이 책의 방법은 철저히 본성론(nation nature)에 가까운 수사 운용으로 일관하는데, 어쩌면 이 자체가 후기식민지인이 식민지 기억을 통해 식민본국을 상대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심리적 태도일지 모른다.<sup>16)</sup>

이레코형, 절부채형, 아네사마 인형형, 도시락형, 노맨형, 문장형이라는 축소지향의 유형이란 실제로는 유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제유(提喻)들이다. 모든 논의는 축소지향이라는 인식보다는 이 술어를 통해 발견되는 일상의 세부들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세부가 국민성 자체를 대표한다. 유사기호학적 형태를 띤 문화유형론이 그것이다. 실상 이러한 문화본질론의 논리는 제유의 방식으로밖에 구성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전체 논리는 처음부터 성립불가능하거나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전후 경제번영을 추동한 대표적 사물로 트랜지스터, 이것은 작고 또 아름답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작은 것이 일본에서는 아름다웠던 것이다. 메타담론으로 형성될 수 없는 경험주의와 일상의 개별 사물들의 기호학적 연결이 최종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축소지향의 일본이 아니라 현대일본의 번영이라는 명확한 사실 그 자체이다. 이론은 메타담론을 통해 발전해 가지만, 이 통념과 세부만 있는 논의는 결코 이론이 될 수 없다. 이 ‘경험적 진실’이야말로 이 책

16) 한 서평자는 이 책의 어조상의 특징을 설명하며, “이웃나라 사람으로부터의 빈정거림(皮肉)은 구미인으로부터의 그것보다도 한층 더 몸속 깊이 스며들어 때로는 아릿하게 아파오지만, 이것이 또한 ‘과연 그럴구나’ 하는 지적 쾌감이 되어 한번 읽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다”고 쓰고 있다. 佐伯彰一·芳賀徹 編, 『外國人による日本論の名著』, 261쪽.

이 그토록 논박불가능한, 아니 논박할 필요가 없는 설득력을 지니는 이유이다. 보았거나 알고 있는 것들을 촘촘하게 연결하여, 자명한 사실을 인준하여 주는 일. 이를테면 “가마에(잘 조직된 자세—인용자)가 있었기 때문에 패전 후의 일본인들은 폐허의 잣더미 속에서도 경제 대국이라는 금덩이를 파내게 되었는지 모른다”(『축소지향』: 123)고 말할 때를 보자. 일상어 차원의 비교언어론과 이를 통해 수렴되는 비교문화론이 향하는 곳은 결국 엄연한 현실로 ‘실재하는’ 경제대국 일본이 성립된 이유이다. 서구인의 일본론을 일본어의 세밀한 부분들 안에서 찾아내어 결합시키는 방법은 이어령의 독특한 화법에 조응해 이 책의 설득력을 배가시킨다.<sup>17)</sup> 단어와 사물을 통한 제유라는 방법이야말로 이 신국민성론을 문화유형론으로 재전환시키지만, 결국 긍정되는 것은 일본인이라는 단위의 놀라운 능력과 그 결과로서의 일본의 번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령 스스로는 자신의 작업을 기호론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기호란 어디까지나 자의적인 결합의 결과이고 약호이기에 이 작업은 결코 ‘일본에 대한’ 기호론적 분석 따위가 될 수 없다. 철부채, 도시락, 트랜지스터는 일본에 내재하는 어떤 ‘지향’, 즉 축소지향의 결과이기에 이는 각각의 사물이 그 전체를 대표하는 제유의 원리에 의해서 추동된다(심지어 그는 접을 수 있는 철부채에 대해 “천 년 전의 트랜지스터 문화”라 명명하기까지 한다). 그리고 이러한 축소지향의 작업을 통해서 그는 일본인이 섬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그 섬 안으로 축소된 채 있기를 기대하고 요구한다.

예컨대 하이쿠(俳句) 본연의 특성을 반(反)이데올로기 문화로 보고 군국주의와 상업주의로부터 정화된 심미성을 찾으려 하는 태도<sup>18)</sup>처럼, 일본인의 세공(細工)이 무기가 아니라 상품과 심미성 안으로 축소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식과 민족미학 없이 어떻게 하이쿠가 일본문학양식의 대표가 된 사정

17) 예컨대 그의 비교언어론은 서양인의 일본론까지를 일본어 안에서 설명해 내며 그러한 점에서 상찬의 대상이 된다. 이를테면 다음의 구절이 그러하다. “일본에서는 좋은 야구선수란 자기 자신의 신체의 움직임은 언제나 올바른 폼에 합치시키는 자를 뜻한다. 그것만 완성되면 다른 것은 자연히 따라 온다는 것이다. 파이팅 씨는 그 글에서 폼, 스타일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그것을 순수한 일본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가마에(構え)가 되는 것이다’(『축소지향』:121).

18) 李御寧, 『俳句で日本を読む—なぜ』古池の蛙, なのか—日本人の美意識・行動様式を探る, PHP研究所, 1983(이어령, 『하이쿠 문학의 연구』, 흥성사, 1986, 213-215쪽으로부터 인용).

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군국주의 없이 어떻게 일본공업의 발달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일본인을 영원한 일본인으로 호명하여 확정해 주면서도, 일본문화의 독(毒)으로부터 빠져나오라 주문할 수 있을 것인가. 잔혹한 역사와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본성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축소지향과 반이데올로기 자체가 전후 일본이라는 역사성 속에서 구축되고 가시화된 현상인 것은 아닐까. 형식적인 고찰에 내재한 암묵적 역사성이란 바로 이런 질문들을 이 책이 유도한다는 데에도 있다.

## 2) 한 보편주의자의 일본특수론 — 한국인됨의 슬픔과 잠재력

그렇다면 이어령은 왜 『축소지향의 일본인』에 그의 40대의 활력을 바쳐야 했던 것일까. 주지하다시피 한 나라의 문학을 배운다는 것은 오랫동안 그 나라 자체, 그 나라의 국민성을 가늠하는 일로 여겨졌다. 하이쿠는 일본인의 심성을 알려 줄 것이다, 노블이야말로 근대 영국인을 해부하는 통로이다, 루쉰에 대한 이해 없이 중국을 알기 어렵다 등등. 문화유형을 통해 해당국 병사들의 심성을 읽는 일. 실제로 적성국의 전투의지와 전략을 알기 위해 해당국의 문학이나 영화를 살피는 일은 2차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세계 전략이었다. 외국어문학은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도 해당 국가에 대한 앎을 창출하는 가장 기초적인 학제로서 살아 남아 있다.

하지만 국민경제의 시기가 끝나고, 글로벌화하는 경제 속에서 인류의 심성이 흠이 없는 평평한 것이 되어 가면서 잡종성과 세계무의식에 대한 검토들이 전면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국민성’으로의 입구라 할 개별 국가, 언어권의 문학이 지닌 가치와 통로로서의 지위는 의심받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외국문학의 지위는 가치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오늘날 일본인론이나 한국인론과 같은 것이 본격적인 학술적 논제로 다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국민성이 아니라 국민성 담론 자체가 문제의 초점이 되어 온 지 오래다. 국민성이냐 개별 민족의 특성과 같은 것이 국민경제라는 특정 조건 하에서 조직되는 요소들의 배치일 뿐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이곳에서 이어령의 『축소지향의 일본인』과

같은 책의 문제성은 현재적이라기보다는 냉전 하 동아시아 질서와 후기식민지인의 사유의 궤적을 따지는 계보학적, 고고학적 탐구의 대상이 된다는 데 있는지 모른다.

어쩌서 일본만이 홀로 공업 경제국으로 구미 문화와 같은 대열에 끼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것은 서양사람의 질문이며, 동시에 일본인으로 본다면 탈아시아적인 자부의 목소리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특성은 서양사람과의 차이점보다는 같은 동양인인 한국인이나 중국인과의 차이점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관심은 바로 그 점에 있으면서도 막상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일반적 특성을 한 보자기에 싸잡아 일본의 특성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다. (『축소지향』: 25)

결국, 이 책이란 일본인론을 통해 한국인론을 펼쳐 보이겠다는 시도가 아니었겠는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나’를, ‘한국인’을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sup>19)</sup>이 아니었겠는가. 즉 이 책을 쓴 동기로 이 어령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노와도 같은 것, 한(恨)과도 같은 것 그리고 무슨 도전과도 같은 긴장”이었다고 할 때, 이는 식민지의 경험, 후기식민지인의 심리 상태 없이는 이해될 수 없다. 도시락문화에 대한 국물문화의 비교, 가나 문자에 대한 한글과 같은 비교항의 설정을 통해서 이 어령은 일종의 극동(極東) 패키지 여행을 제안하는 셈인데, 적어도 1982년의 시점에서 그것 말고는 달리 한국을 ‘대등하게’ 알릴 방도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비교의 방법과 대당(對當) 설정 자체가 비교 대상 간의 안정적인 대립을 통해서 양 단위의 쌍형상화(雙形象化)를 유도한다고 할 때, 이러한 방법이야말로 종속을 넘는 탈식민의 기획이 되는 것이다. 이 패키지 관광에의 제안에는, 따라서 당연히 (구)제국-(구)식민지라는 역사성이 ‘내재한다’.

즉 “일본을 알아야 한다는 당위”(『축소지향』: 446)와 한국을 알려야 한다는

19) 이 어령, 『축소지향의 일본인』이 나오기까지, 『축소지향의 일본인』, 문학사상사, 2009(2002), 26쪽.

당위의 결합이야말로 이 책을 쓰게 한 이유였을 터이다. 자신이 살아왔던 경험 속으로, 스스로가 일본어를 말해야 했고 일본인이어야 했던 시간으로 소급하면서 갖게 되는 설득력, 호소로서의 수사학이 이 책의 전편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소 과감하게 말해 이 책은 한때 ‘일본인’이었던 사람이 한국을 자국이자 이 방향으로 보게 되는 프레임, 즉 강요된 객관성에 기초하고 있다. 자기부정과 자기연민이 교차하는 20년 전의 『흙 속에 저 바람 속에』(1962)에 기원을 둔 이 시선은 실제로는 내재했던 욕망, 되고 싶었으나 끝내 될 수 없었던 것(순수한 일본인)에 대한 논의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는지 모른다. 다시 말해, “잇슨보시(一寸法師)가 보다 일본적이라는 증거는 다름 아닌 이방의 여덟 살 먹은 어린이에게까지 알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할 것이다”(『축소지향』: 36)라는 말에는 이 책의 출발이 아로새겨져 있다. 한글을 배우기 전에 일본어를 먼저 배운 세대 — “국민학교에서 일본어를 ‘국어’로서 배울 무렵, 가장 놀라웠던 것은 자국의 문자를 어떤 반복도 없이 단 한번씩만 써서 한편의 시에 집어넣어 버린 가나문자(いろは)의 기적이었다”<sup>20)</sup> 고 기억하는 “일제 지배 하의 한국 충청남도에서 태어난” 식민지의 수재 — 가 느꼈을 적막감과 열등감, 인정투쟁이 이 구식민본국의 ‘국어’로 된 책을 낳았던 까닭이다. 특히 ‘데가루이(手輕い: 손쉽다)’ (도시락이나 통조림에) 쓰메루(詰める: 채워 넣다), ‘이레코에) 고메루(込める: 채워 넣다)’ 등과 같이 축소지향의 사물에 대응하는 형용사/동사들이나 도모(どうも)와 같은 축약형 표현을 통해 시도되는 비교언어론적 발상법은 “구미로부터 파견된 특파원이나 경영학자 및 외교관들이 쓴 책들에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뛰어난 업적”이라 평가되었으며, 적잖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구식민지인이라는 태생에서 찾고 있다. “재미없다”(つまらない)를 ‘채워 지지 않았거나 축소되지 못했다’라는 어원에까지 소급할 수 있는 외국인은 (피식민자였던) ‘한국인’말고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만 해도 그렇다. 비교언어론에 의해 정당화되는 일본론이야말로 “일본통치 하의 한국에서 태

20) 佐伯彰一·芳賀徹 編, 『外國人による日本論の名著』, 261쪽.

어나 ‘국민학교’에서 어쩔 도리 없이 일본어를 배웠고, 일본의 그림책을 보며 자라나, 먼 훗날 시학·수사학을 익혀 전문가가 되고, 가스통 바슐라르나 롤랑 바르트도 충분히 이해하게 된 이교수이기에 비로소 처음으로 가능해진 통찰<sup>21)</sup>이라는 것이다. 저자 스스로도 번역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지지미’(縮み) 자체가 동사로부터의 활용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표상문화에 대한 분석을 명사화된 사물들이 아니라 그 사물들을 설명하고, 그 사물들에 작용하는 형용사나 동사 표현에서 찾는 방식과 교양이야말로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접경지대의 사유로 만드는 원인이라 할 것이다. 요컨대 그는 명사화된 문화사물이 아니라, 동사로 작동하는 구제국의 ‘행위’ 안에서 말한다.

일본특수론에 잠재한 서구-일본의 도식이 가진 비대칭성을 지적하며, 일본특수론을 동아시아 안에서 재구축하려는 시도나, 마이크로 세계로서의 하이쿠, 잇스보시, 트랜지스터 라디오 등의 긴 역사적 산물을 하나의 시점에서 유형화하는 동일성의 신화를 지적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동기가 여기에는 존재한다. 1945년 8월을 기점으로 하여 분할되어 떨어져 나간 저 잇스보시의 이야기를 듣던 어떤 동일자-옛 신민(臣民)으로부터 자기(日本)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형식이야말로 이 책의 숨겨진 소통 구조라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한 후기식민지인의 처절할 정도로 씩씩한 자기확인 과 인정의 고난이 잠재해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러한 역사성이야말로 이 잡다할 정도로 포괄적인 대중적 일본문화 개론을 축소지향이라는 하나의 키워드 이상으로 만드는 이유인 것이다.

예를 들어, 상식적으로 일본의 이레코 문화나 공원 문화의 미비는 축소지향이라는 통역사적 심성보다는 메이지유신 이후의 급격한 도시화와 그에 따른 도시집중이 낳은 협소한 주거문화에서 기인했을 터이다.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식의 역사적 정황이나 합리적 인과관계가 아니다. “지금까지 일본인 히로시마(広島)의 원폭 피해자의 참상을 그린 영화가 33편이나 되는데도 한국인 피폭자를 다룬 영화는 단 한편도 없다는 대목”(『축소지향』: 377)을 생각해 보자. 이

21) 佐伯彰一·芳賀徹 編, 『外國人による日本論の名著』, 263쪽.

“웃어넘길 수가 없는” 일에 대해서 이어령은 그 원인을 전후 일본의 정치 비판의 허약성에서 묻기보다는, ‘작은 우치(內)’와 ‘뭘 해도 좋은 소토(外)’ 사이에 존재하는 축소지향의 ‘형식’에서 찾는다. 그러니까 그의 의도는 그러한 본성에 차라리 충실함으로써 일본이 확대지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호소하는 데 있다. 그는 일본이라는 ‘잊을 수 없는 타자’를 그렇게 문화적으로 봉인한다. 별도의 정치 비판보다는 그로서는 내내 여덟 살 시절의 전율과 공포에 계속 머물며 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일본문화론의 단초는 이미 그의 한국문화론 『흙 속에 저 바람 속에』(1962) 안에 내재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예컨대 『축소지향의 일본인』에서 축소지향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었던 잇스보시 이야기가 20년 전에는 확대지향 혹은 확장주의의 전형적 사례로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식민지의 외로운 아이들은 두 개의 다른 설화를 듣고 자라났다. 학교에서는 ‘모모타로’(桃太郎)나 ‘잇스보시’(一寸法師)의 이야기를 배웠고, 집에 돌아와서는 희미한 등잔불 밑에서 호랑이에 쫓기는 두 남매의 옛이야기를 들었다.

일본어로 들은 이야기들은 한결같이 침략적이고 야심적인 것이었으며, 우리말로 들은 그것은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수난에 찬 이야기였다. 북송아에서 나온 아이는 칼과 경단을 들고 단신으로 도깨비성을 징벌하러 간다. 혹은 키가 한 치밖에 안 된다는 난쟁이가 ‘자왕’(茶碗)의 배를 타고 바늘을 칼삼아 휘두르면서 힘센 도깨비와 맞서 싸우기도 한다. 이야기는 언제나 황금의 수레를 끌고 오거나 신기한 보물 막대기를 빼앗아 오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부러움이었다. 어떻게 해서 그 조그만 아이가 힘센 도깨비를 칠 수 있었던가? 또 그 많은 황금과…… ‘모모타로’의 ‘경단’과 ‘칼’은 곧 일본인들의 ‘간계’와 ‘무력주의’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난쟁이가 여섯 척이 넘는 도깨비를 친다는 것은 작은 섬나라(일본)일망정 대륙을 넘보아 진출하려는 침략주의 근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들은 사실 혈혈단신 ‘훈도시’ 바람으로 한국을, 중국을 그리고 전세계를 공략



하려고 했다. ‘한 치’도 되지 않는 것들이 말이다.

일장기가 걸려 있는 교실이 아니라 빈대의 핏자국이 낭자한 초라한 방 안에서 이번에는 저 언덕을 넘을 때마다 판 경단을 빼앗기고, 옷을 빼앗기고, 팔과 다리와 그리고 끝내는 목숨까지 빼앗기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안 된다. 호랑이는 어머니의 옷을 입고, 집에서 기다리던 아이들까지 잡아먹으려 한다.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의 눈에도 눈물 방울이 어린다.<sup>22)</sup>

제국일본과 식민지조선 양쪽에 존재했을 이 이야기들은 물론 사실일 것이다. 그런 한편 이 이야기가 특정 시기에 한 국가 사회가 가진 목적과 삶의 조건에 의해 형성되었을 ‘통념’에 의한 호명임도 간과할 수 없다. 문제는 수많은 이야기군(群)들 중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대표적 ‘민족 이야기’로 뽑혀 나오는가 하는 점인데, 이어령으로서는 스스로가 속한 땅의 경험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했을 터이다. 다시 말해 그는 이 이야기의 대표성을 즉시 믿어 버리며, 이를 통해 양 민족의 근본적 본성을 도출하기에 이른다. 호랑이에 쫓겨 나무에 오르고, 결국 동아줄을 타고 하늘에 올라 해가 되고 달이 되었다는 설화로부터 “침략이 아니라 수난의 이야기”, “지상에서의 탈환이 아니라 천상에의 도피”를 읽어 내는 정신에 의해 한 편의 설화는 “‘모모타로’나 ‘잇스보시’의 침략주의에 의해서 어미를 잃고 드디어는 먼 하늘과 같은 타향으로 망명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 겨레의 설화”가 된다. 다시 말해 식민주의의 기억 — “식민지 아이들”의 기억 — 으로 인해 한국인론과 일본인론은 표리와 대칭을 이루는 연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험의 변화는 이야기에 대한 해석 자체의 풍화와 변화를 낳는다. 심지어 앞서 논하였듯이 똑같은 모모타로와 잇스보시의 이야기가 『축소지향의 일본인』에서는 침략주의가 아니라 소국주의, 축소지향의 사례로서 언급되게 된 것이다.

성취와 약탈의 이야기와 박탈과 눈물의 이야기 사이의 대조법이 1962년의 한일비교문화론이었다면, 1982년 — 이제 겨우 박탈과 눈물을 벗어나려는 시점

22) 이어령, 『해와 달의 설화』,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문학사상, 2009(1962), 56~58쪽.

에야 이 잇슨보시의 확장과 약탈의 이야기는 약간의 상대화를 거쳐 축소지향이 라는 통조림 속으로 구겨져 들어간다. 이 20년이라는 역사적 시간은 대체로 일본의 자민당 체제와 한국의 박정희 정권이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체제 하에서 한일 협약을 체결하고 근대화 매진하던 시기이다. 이는 근대화와 안보라는 틀 안에서 두 개의 문화가 어쩔 수 없이 이해(interest)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비교가능한 대당(對當)이 되었음을 뜻한다. 비교란 당연히 비교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보편 주의자로서의 이어령이 김동리와의 논쟁에서 주창했듯이 소위 '보편적인 가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한국적 특성도 세계와 교환불가능하다고 할 때 1982년의 시점은 이제 겨우 한국이 이어령이 비판한 바의 '토속주의'와 '서낭당 문화'에서 벗어나게 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바덴바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1981년 9월 30일이었다. 서독의 바덴바덴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서울이 일본국의 나고야를 제치고 1988년 하계 올림픽의 개최지로 결정된 것이다. 주지 하다시피 당시 대륙별 순환 원칙에 따라 1964년 도쿄 올림픽 이후 24년만에 아시아 국가가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확정된 상황에서 최종 후보는 대한민국의 서울과 일본의 나고야였다. 비로소 세계 안에서 한국과 일본이 비교 가능한 단위 혹은 형식적인 대등성을 가진 선택지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이어령의 『축소지향의 일본인』(1982년 1월 출간)이 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먼저 식민본국에 호소하고, 거기서의 성취를 다시 세계로 매개하려 했던 과정을 어떻게 후기식민지라는 고유한 모더니티 지향 없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 책 최초의 서구어 번역인 프랑스판은 1988년에 출간되었으며,<sup>23)</sup> 총서의 책임자 장 보닌(Jean Bounine)은 이 책이 일본 경제문화 특히 도요타·닛산·마츠시타·Nec·소니에 대한 설명으로서뿐 아니라 일본의 경제와 문화를 설명할 때에 한국이라는 비교항/타협지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촉구한 사례로서도 유의미함을 강조하고 있다.<sup>24)</sup> 1991년 출간된 『축소지향의 일본인』의 영역

23) O-Young Lee, *Smaller is better: miniaturisation et productivité japonaises*, traduit de l'anglais par Jean Martel, Paris: Masson, 1988.

24) Jean Bounine, "Avant-propos", O-Young Lee, *Smaller is better*, pp. 5-6.

페이퍼백 판(초판 영역본은 1984년 출간) *The Compact Culture: The Japanese Tradition of "Small Is Better"*에는 이어령이 지닌 소설가, 극작가, 비평가, 문학 교수, 문학사상 편집자로서의 이력 다음에 다음과 같은 소개의 말이 덧붙여져 있다. “1988년 그는 서울 올림픽의 개회식과 폐회식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의 장으로서 일했으며, 같은 해 대한민국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다.”<sup>25)</sup>

“제 나라의 모국어를 말하지도 쓰지도 못하는 언어의 수인(囚人)으로 자라야 했”던 한 식민지인의 유년 시절, 일본이라는 잊을 수 없는 타자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론과 한국인의 길을 해명하던 청년기를 지나, 이제 40대에 이른 이 근대화 세대는 마침내 일본을 매개로 하여, 또 일본과 경쟁하며 세계성에 매개되는 시간을 만나게 된다. 아니 견인하게 된다. “단 한번만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쓴 책을 일본 사람들이 전차 안에서 읽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내 평생 소원 하나가 풀리는 것입니다”(『축소지향』: 435)라는 말과 이러한 의욕에서 구성된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식민본국인에게 인정받겠다는 피식민자 특유의 열의, 이를 통해 세계성을 매개하겠다는 피식민자 특유의 보편주의 없이 설명하기란 극히 어렵다. 이러한 인정 투쟁과 피없이 매마른 복수의 과정에 이 책의 이름난 문체의 한 자락을 담당할 제일 조선인 번역자 이은택(李銀澤, 정비석의 『소설 손자병법』 등을 번역)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요컨대 이 책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이러한 후기식민지인의 자기 증명, “한국인을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축소지향』: 435)에 기인한 한(恨)과 분노의 살풀이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소위 “언표행위 분석”<sup>26)</sup>이라는 형식상의 가치중립성을 기치로 내걸고 시도된 그의 일본론은 일본이라는 ‘잘 알려

25) O-Young Lee, *The Compact Culture: The Japanese Tradition of "Small Is Better"*, translated by Robert N. Huey, Tokyo: Kodansha International, 1991(1984), p. 1.

26) 예컨대 이어령은 “하이쿠 내셔널리즘”을 비판하며, 이런 경향으로부터 거리를 둔 하이쿠 해석의 방안으로 언표행위(ÉNONCIATION) 분석이라는 방법을 제안한다(이어령, 『하이쿠 문학의 연구』, 홍성사, 1986, 8쪽).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어령의 책 『俳句で日本を読む - なぞ』古池の蛙, なのか - 日本人の美意識・行動様式を探る』(PHP研究所, 1983)는 “축소지향의 일본인”에서 다룬 문화론의 문제들을 좀더 전문화하여 문학적인 영역 안에서 관찰(『머리말』 참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집필되었으며, 『축소지향의 일본인』과는 그 분석 방법을 상당 부분 공유한다.

진 독립변수' 혹은 상수(常數) 없이는 한국이라는 동양론의 종속변수를 알리기 힘들다는 후기식민지인 나름의 고민이 낳은 저작이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가치중립적 기호 분석 - 일본의 제유들을 앞세워 한국인을 증명해 보이기에 이른다. 그러자 겨우 “타국의 피와 눈물로 쌓은 일본문화”<sup>27)</sup>라는 진심[本音]이 비로소 매개 가능해진다. 동동한 형식 속에서 “동아시아 문화권을 만들어 내지 못한 책임”을 함께 논하고, “동아시아 세계를 만드는 데 일본이 별 공헌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바로 지금 일본문화의 최고 약점이 되고 있다”며 일본의 책임을 공박하는 이어령의 목소리<sup>28)</sup>는 활기차다. 이러한 별날 것도 없는 비판적 발화장이 그의 책이 의도한 형식적 가치중립성과 그로 인한 성공으로 인해 가능해졌음은 말할 것도 없다. 한편의 일본론이 그를 ‘한국의 대표 지성’으로 만들었고, 이 일본론으로 인해 이 한국인의 작업이 ‘세계로’(실제로는 ‘서구’의 영어와 프랑스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이야말로 후기식민지 사유의 존재방식과 유통양상을 증거하는 사례인 것은 아닐까.

이러한 대외적 강박관념, 일본과 한국사에 대한 한과 분노야말로 이 명민하고 불온했던 지성을 계속 주류 사회-근대화 세력 편에 남게 한 근원적 힘이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우리의 예술과 문화가 이미 수정알 같은 눈물에서 싹터 그 눈물에서 자라난 것”이라는 인식, “우리의 슬픔과 그 울음은 대부분 가난과 굶주림에서 온 것”이라는 이해<sup>29)</sup> 속에서 살 수 밖에 없었던 사람에게 ‘불온성’이란 체제 저항의 방법이라기보다는, 삶의 개선과 울음의 종식을 가로막는 모든 후진성과의 싸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어령과 그의 논적 김수영의 논쟁에서 드러나듯, 김수영에게 “99%의 자유란 부자유”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어령에게 자유든 무엇이든 간에 서양만 한 자유, 일본에 부끄럽지 않을 민주주의면 그걸로 충분했던 것이다.

마치 일본문화론의 방법처럼, 그에게 한국 안에는 어떠한 분열이나 갈등도

27) 司馬遼太郎, 『韓国, そして日本 - 李御寧』, 『對談集 東と西』, 朝日新聞社, 1990, 244쪽.

28) 司馬遼太郎, 『韓国, そして日本 - 李御寧』, 236-237쪽.

29) 이어령,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문학사상, 2009(1962), 22-23쪽.

있어서는 안 되었다. 설령 갈등이 있더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소위 ‘비빔밥’의 다양성과 같이 최종 목적 — 한국의 근대화, 보편성 획득 — 에 봉사하는 그런 종류의 경제로 가치전환할 수 있는 다양성이어야 했다.

### 3. 일본(인)은 정말 축소지향적인가 — 확장 혹은 승화로서의 축소지향

마지막으로 축소지향으로 설명된 일본 혹은 일본인의 지향에 대해 약간의 견해를 덧붙이며 글을 끝내고자 한다. 전전(戰前) 일본과 전후(戰後) 일본이라는 단절을 설명하는 단서로서 이어령이 끌고 나오고 있는 것이 소위 노멘, 즉 중간표정론이다. 노(能)의 가면이 가진 무표정이 어떠한 성격화도 감당해 내는 극의 핵심이라 한다면, 과연 중간표정론은 전쟁기의 일본의 호전성과 전후의 일본의 순종성이 보여 준 극적인 변화를 연결하는 하나의 장치가 된다. 노멘이라는 무표정의 공백을 통해 전전과 전후의 두 시간, 확대와 축소라는 두 지향을 잇고 있는 것이다.

즉 이 책에는 하나의 휴지(休止) 혹은 결락이 있다. 전전과 전후라는 전혀 다른 시간 혹은 체제상의 차이를 ‘일본인’이라는 하나의 대상 속에 녹여 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어령 스스로는 중간표정이라는 일본인론의 중립지대에서 전전과 전후를 잇는 일관된 일본인상을 끌어내고 있으나, 실제로 중간표정이란 어느 것이든 가능하다는 뜻에서 결코 하나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일본인론이 될 수 없다. 무표정하기 때문에 악인으로도 선인으로도 보일 수 있고, 실제로 그랬다는 식의 설명은 일본인의 본성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본성’ 전체처럼 느껴진다. 제도와 체제, 사회 구조와 경제 관계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는 사안들 앞에서, 이어령은 내내 축소지향에 집착하는데 이는 물론 방법론적 한계일 수도 있지만, 그로서는 이를 통해 일본을 열도 안에 묶어두기를 희망했을 수도 있다.

전전과 전후의 일본, 혹은 어떤 일본이 갖는 특질을 그 당대 안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제유, 즉 결과로서의 전체를 의탁할 수 있는 하나의 기호 속에서 도출하려는 전도가 일어나는 순간도 대부분 이러한 때이다. “일전성”(一轉性)이라는 말처럼, 그것은 전전 일본과 전후 일본의 격차에 대한 전율과 전전 경

험의 공포가 낳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일본에 대한 역사적 두려움/경험론이 빛은 방법 혹은 휴지에 다름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휴지peace, 즉 평화란 바로 그러한 전전과 전후 사이의 짧은 침묵—패전의 순간—속에만 존재한다.)

일본의 노멘, 특히 시테(주인공)가 되는 젊은 남녀의 가면은 검도의 ‘가마에’(構え) 같이 어떤 감정으로든 옮길 수 있도록 희노애락을 응축한 ‘중간 표정’을 나타내고 있다. ……얼굴의 방향을 약간 돌림으로써 완전히 달라지는 와카메(여주인공)의 노멘은 길거리에서도 호텔의 로비에서도 국제회의장에서도 볼 수 있다. ……『국화와 칼』을 쓴 베네딕트의 놀라움은 무엇이었던가! …… 가미가제 특공대와 함께 또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한 일본인의 두 얼굴, 노멘의 축소 문화를 몰랐던 구미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당연하고 당연한 일이다.(『축소지향』: 125~126)

그런데 어떨까. 이 일본인은 변한다, 일본인은 믿을 수 없다는 말에는 수많은 함정들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트라우마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조선인은 믿을 수 없다, 전라도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말처럼, 이 고유한 편견은 구조 분석을 심성론으로 대신한다는 점에서 피해자-가해자 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트라우마의 언설이다.

이쯤에서 과연 “일본인은 축소지향적인가”라는 이어령이 제기한 문제 자체를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야 이 휴지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가라타니 고진은 그의 이어령론에서 카메라 옵스큐라나 항아리 속 하늘과 같은 축소지향 자체가 무한(無限)과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마치 파스칼에게 우주의 한 점인 ‘나’라는 주체가 우주라는 무한을 품고 또 의식하는 주체로서 그 자체로 무한의 기원이듯이, 축소지향에는 무한과 숭고에 대한 관념, 즉 거대지향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밖의 풍경을 정원의 일부로 끌어들이는 소위 ‘샷케이’(借景)가 축소지향이 아니라 확대지향으로 해석 가능하듯이, 또 원근법이 실제로는 소실점의 형태로 나타나는 무한을 다루기 위한 방법이었던

이, 가장 작은 것은 아름다움보다는 ‘큰 것’과 더 깊이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거대한 대상이 주는 숭고는 대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을 직관하는 인간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6세기 이후의 일본은 서양문화와 교류하면서 원근법에 의한 축소와 원근법 자체에 내재한 소실점이 포섭하는 무한을 이입시키고 있었다. 총기와 대포, 교역의 폐해와 공포에 의한 쇠국 자체가 세계체제 - 세계교통의 반영이라 할 때, 쇠국 자체도 무한에 대한 공포에 다름 아니다. 즉 축소와 확대의 모순을과도 같은 결합을 숭고하게 느끼고 거기서 경이를 보는 심성 자체가 근대성의 일반 현상이라는 것이다.

물론 고진이 이어령의 생각에서 긍정하는 것은 서양대 일본, 중국대 일본이라는 관점을 혁신하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라는 관점과 그 안에 내재한 한국과 일본의 불행한 역사의 산발적인 출현이다. 이어령이 시도한 근원적인 수준의 발견은 오히려 근대 일반의 현상을 일본(만)의 것으로 적시하려는 의지 자체와 관계되어 있다. 즉 필자가 보기에 고진은 이어령을 비롯한 어떤 한국인들이 여전히 일본을 통해서 서구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는 듯 생각되며, 근대 일반의 특질을 일본의 특수성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하는 듯 느껴진다. 그러나 그것은 근대의 공포스러운 경험을 일본을 통해 마주했던 한국에서는 당연한 심리적 과정이 아니었을까.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의 정원, 그리고 그 특징인 ‘축소’가 거대한 것(한정될 수 없는 것)에의 지향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극단적인 ‘축소’에는 ‘한정될 수 없는 것’을 제어하려고 하는 의지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어령이 그것을 자연에 대한 서양의 태도와 공통적인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30)</sup>

30) 가라타니 고진, 「사케이(借景)에 관한 고찰」, 492~493쪽.

만약 현대 일본문화에 축소지향이라는 것이 발견된다면 이는 군사대국 제국일본의 거대지향이 패전 후의 비군사화에 따라 축소지향이라는 전도된 형태로 결과되었기 때문이다. 항구불변의 민족성 따위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위한 기호 혹은 알레고리로서 고진이 끌어오는 것이 샷케이(借景)이다. 고진은 샷케이, 즉 외부의 무한한 자연을 빌려와 자연스러운 자연을 향수하는 일본의 정원으로부터 축소지향과 확대지향의 동시성을 찾아낸다. 고진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도시상인문화와 그것이 필연적으로 배태하는 축소지향의 관련이다. 다실과 같은 축소지향의 문화 자체가 자치도시 사카이(堺, 지금의 오사카)의 상인들, 도시문화가 낳은 정치적 협의의 장소의 반영물이라는 것이다.

물론 16세기의 시민혁명적 요소는 곧 압살되고, 권력은 거대함을 과시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축소지향이라는 말이 실제로 함의하는 도시문화는 점점 스노비즘적인 것이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항의 문화적 영역에서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무한-세계’의 관념은 그 속에서도 남는다. 이어령이 지적한 하이쿠나 인형극 등의 축소지향 문화는 실제로 이들 상인 계급에 의한 표현이며, 비뿔어질 대로 비뿔어졌지만 어쨌든 부르주아 계급투쟁을 예고하였다. 즉 과연 고진의 말처럼 “축소”에 의한 무한성의 실현 — 그것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권력=질서=이데올로기를 전도하려고 하는 — 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sup>31)</sup>

하지만 일본 자체가 근대의 매력과 폭력을 동시에 들여다보는 카메라 옵스큐라였다는 것, 또 일본의 작은 것 속에서 거센 무력과 확장주의를 동시에 발견하는 감각 자체가 이 책의 근원적 비판력이자 이 책이 결코 의심할 수 없었던 후기 식민지의 에피스테메라는 사실을 실제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미니어처로 축소된 궁정의 인물들, 풍속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일까. 결국 그것은 벤야민이 『독일비극의 원천』 등에서 말했던 우주적 알레고리와 같은 것이 아니었겠는가.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무한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작다. 그리

31) 가라타니 고진, 『사케이(借景)에 관한 고찰』, 497쪽.



고 그것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결국 우스운 것/가소(可笑)로운 것이 된다. 작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기에 비판 즉 비평(Critique)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축소지향의 일본문화가 있다면 거기에서 빠져 있는 관점은 이것이다. ‘축소지향’을 비판의 첫 모멘트로 하여, 어쩌면 일본인론 비판이 개시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축소지향의 일본인』이 “과연”(なるほど) 그렇게 설득력 있게 읽혔다고 한다면,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도 이것이다. 이 작아진 것들은 작아졌음에도 역사의 과국과 관련된 비판의 장으로 옮겨지지 않은 채 떠도는 기표, 혹은 안전한 제유들로 머문다. 이어령의 『축소지향의 일본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축소지향의 일본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개별적인 기호들, 사물들을 통해 세계를 정말로 분석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데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훌륭한 ‘문학’이나 ‘과학’은 아니다. 제국일본의 식민지에서 태어난 소년이 쥐고 있던 몽당연필 한 자루. 일본을 통과해 세계에 이르려 했던 식민무의식 혹은 포스트콜로니얼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이 장면으로 돌아 보자. 적이 아버지가 되는 곳. 일본이 근대화 및 세계화 과정의 목표이자 보호자가 되는 곳.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어령식의 길을 생각할 수 있었으며, 이어령이 바로 그렇게 이미 나 있던 길을 갔다. 그러나 그 길, 즉 (후기)식민지 - (구)식민본국 - 세계의 길은 가장 전형적인 길이기도 하나, 결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다. 축소지향이라는 ‘작아진 일본’ 안에서 그는 한국을 세계로 승화(sublimation)시킨다. 이 일본론 속에서 한국은 언표불가능하지만 내내 잠재하는 사고의 한계 혹은 활력으로서 표상되는데, 저 작은 나라 한국의 표상불가능성은 바로 그렇게 해서 승고한 것으로 전화된다. 만약 거기에 비판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언저리일 터인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국민문화들과 제국/식민지를 단위로 한 규칙들 안에서만 이 비판이 유효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그러한 문화의 규칙들은 이미 폐허에 도달해 있다.

신은 세부에 머문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구원과 비판의 가능성 역시 세부에

서 찾아져야 한다. 그러나 이때의 세부란 단순히 이미 존재하는 전체를 대리하거나 대표하는 '작은 것'[提喻]이 아니라, 이미 형해화(形骸化)된 전체, 폐허의 형상을 단번에 보여 주는 일종의 알레고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으로부터 그 어떤 가능성을 점화하려는 사람이라면, 우선은 저 가시화된 폐허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속에서 선(인)의 무리는 만주벌판을 누비는 독립투사들, 지하에서 암약하는 혁명가들, 그리고 일본(인)에 대한 강렬한 적개심과 혐오감을 간직하고 있는 다수의 민중이며, 악(인)의 무리는 소수의 일본(인)과 ‘친일파’들이다. 이 멜로드라마의 세계 속에서 궁극의 승리를 향해 가는 선(인)의 총칭(總稱)은 ‘민족’이다. ‘민족’ 또는 ‘조국’은 선(인)의 근거이며 또한 종착지이다. 다시 말해, 출발점이자 회귀점으로서의 ‘민족’은 이 멜로드라마의 진정한 주인공이다. 『토지』를 민족-멜로드라마로 명명한 까닭은 거기에 있다.

통속 멜로드라마의 상투적 묘사법, 즉 흉악하고 포악한 ‘악당’과 지고지순한 ‘선인’의 극단적인 대비는 『토지』의 서사를 이끄는 기본 동력이다. 추악하고 타락한 ‘악당들’(‘왜놈’,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반대쪽에 선량하고 도덕적이며 인간적 미덕과 초인적 용기로 가득 찬 ‘선인들’(항일독립투사들, 민족주의적 지식인들, 농민을 비롯한 ‘민초들’)이 존재한다. 농촌 공동체의 일상에 대한 생생한 묘사에도 불구하고 『토지』 전체를 지배하는 인종주의, 제노포비아, 국수주의적 문화본질론 등은 이 소설의 즐거운 독서를 크게 방해하고 있다.

**주제어:** 『토지』, 멜로드라마, 민족주의, 이분법적 인식, 인종주의, 제노포비아

### **일본, 그럼에도 여전히, 세계의 입구: 『축소지향의 일본인』으로 읽는 한 후기식민지인의 초상 | 황호덕**

투고일자: 2010년 6월 10일 | 심사일자: 2010년 6월 23일

“어째서 일본만이 홀로 공업 경제국으로 구미 문호와 같은 대열에 끼 수 있게 되었는가?” 이어령의 『축소지향의 일본인』(1982)이 출간된 시점은 1980년대 일본의 경제대국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일본(인)론에의 요구가 비등했던 때였다. 이어령은 이 책에서 후기식민지 출신의 비평가로서의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 서구 대 일본이라는 일본인론·일본문화론의 틀을 깨고 동아시아 내에서의 차이라는 새로운 비교문화적 담론틀을 제기했다. 즉 후기식민지인의 식민본국론이라는 틀 자체가 일종의 문화접경지대로부터의 논의로서 비상한 주목을 끌었던 것이다.

나는 이 글에서 이어령의 일본문화론을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했다. 첫째 축소지향으로 설명된 그의 일본문화론을 일관하는 방법은 사회 및 역사, 정치경제분석과는 전혀 다른 기호론적 방법—실제로는 국민성의 제유 배열에 의해 구성되었다. 월부채, 도시락, 워크맨과 같은 일상의 사물과 세부가 국민성을 대표하게 되는 ‘유사기호학적 제유’의 방법은 이 문화접경지대의 논의를 다시 문화본질주의의 유행학에 귀착시키는 원인이 된다. 둘째 한일 비교의 방법을 통해 전개되는 그의 일본문화론의 심층심리에는 일본문화론 읽기의 기대지평 안에 한국문화론을 기입하려는 후기식민지인의 독특한 도전이 개입되어 있었다. 이렇게 일본을 통해 동양론의 심부로, 이를 통해 세계성·보편성으로 매개되고자 했던 그의 구상은, (후기)식민지인이 (구)식민본국을 통해 세계로 나아가려 할 때 택하게 되는 제국 에이전시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하게 한다. 셋째 축소지향이라는 일본문화론의 키워드가 실재하는 일본 상품과 문화 형식을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축소지향이란 일종의 카메라 옵스큐라와 같은

것으로 유한한 장치를 통해 무한과 승고를 다루려 한 근대문화 일반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요컨대 이어령의 일본문화론 속에서 한국은 직접적으로 언표할 수 없지만 내내 잠재하는 사고의 한계 혹은 활력으로서 작용하는데, 저 작은 나라 한국의 표상불가능성은 바로 그렇게 해서 승고한 것으로 진화된다. 이어령의 일련의 일본문화론은 축소지향이라는 ‘작어진 일본’ 안에서 한국문화론을 세계적 차원으로 승화(sublimation)시키려 했던 후기식민지적 실천의 일종이었다.

주제어: 이어령, 축소지향, 제유, 일본인론, 후기식민지

### **이병철의 일본 모방과 추월에 관한 시론 | 김영욱**

투고일자: 2010년 6월 6일 | 심사일자: 2010년 6월 23일

이 글은 삼성 창업자인 이병철의 용일(用日)에 관한 것이다. 이병철은 삼성의 성장 과정에서 일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일본을 통해서 정보와 지식을 얻는 등 배움의 터전으로 활용했다. 더불어 일본은 모방의 대상이었다. 부족한 자본과 기술, 경영방식을 일본과의 제휴를 통해 보완하면서 일본처럼 되려고 노력했다. 1970년대 중반까지 일본에의 의존도가 매우 컸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이병철은 일본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일본을 모방하면서 자본과 기술력이 어느 정도 축적된 1970년대 후반부터 이병철은 기술 및 자본 제휴선을 미국과 유럽 쪽으로 돌렸다. 더불어 이병철은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병철은 생전에 극일을 이루지 못했으며, 아들이자 후계자인 이건희에 와서야 이를 수 있었다. 한편 이병철의 일본인식은 식민지기를 살았던 대부분의 한국인들처럼 이중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남긴 단편적인 기록에 따르면 한편으로는 피해의식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외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설령 이병철의 일본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해도 이것이 이병철의 용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기업경영은 인식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경제적 영역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이병철, 삼성, 용일, 도쿄구상

### **일본인의 ‘전후’와 재일조선인관: 미군 점령당국에 보낸 편지들에 나타난**

#### **일본 사회의 여론 | 정응욱**

투고일자: 2010년 6월 11일 | 심사일자: 2010년 6월 23일

일본인들은 미군 점령기에 점령당국과 맥아더 장군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다. 점령당국은 이 편지들을 분석하거나, 일본인들 사이에 교환된 편지를 검열했고, 그것들을 일본 사회의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자료원으로 활용하거나 점령정책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고찰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 대체로 일본인들의 편지는 식량난, 귀환 등 개인들의 일신상의 이해관계를 반영했지만 천황제 폐지, 전후개혁, 전범재판 등 당시의 중요한 정치·사회적 의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패전 직후 일본인들이 맥아더 장군과 점령당국에 보낸 편지들은 그 시기 일본인들의